

해외출장보고서
2019.6.30 ~ 7.7.
프랑스

『지역주도형 지역발전 투자협약 모델 및 운영에 관한 연구』 프랑스 사례 조사

2019. 7. 15.

김찬준(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I. 출장개요

- 출 장 자 : 김찬준(국가균형발전연구센터, 연구위원)
- 출장기간 : 2019.6.30.(일) ~ 2019.7.7.(일) (6박 8일)
- 출 장 지 : 프랑스 파리/리옹
- 출장목적 :
 - 프랑스 국가-레지옹 계획계약(Contrat Plan Etat—Region)을 중심으로 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 계획계약을 위한 체계 등 제도(CGET, SGAR 등), 운영방식 및 성과관리체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재원분담 방식, 협약의 운영방법(사업기간, 매칭 등), 평가기준 및 운영방식 등
 - 계획계약(포괄적 지역발전 투자협약) 적용 기준(관점) 및 유형: 계획계약 대상의 범위 및 유형 등

II. 세부일정

일자 (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등)
6.30 (일)	인천 파리		인천 출발 → 프랑스 파리 도착
7.1 (월)	파리	13:00	· 방문기관: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 면담자: Julien MEGDOUD(Coordonateur de politiques publiques-CPER), Luc FARALDI(Chargé de mission relations internationales)
7.2 (화)	파리	09:00	· 방문기관: 일드프랑스 지방 국가지사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en Ile de France) · 면담자: Vasilije KUJACIC(Chargé de

일자 (요일)	장소	시간	주요 일정 (방문기관, 면담자 등)
			mission contractualisation, transition énergétique et agriculture)
		14:30	· 방문기관: 일드프랑스 레지옹 의회 (Conseil régional en Ile de France) · 면담자: Michel RUFFIN(Directeur de la coordination et de la modernisation de l'action publique/MS3)
7.3 (수)	파리	10:00	· 방문기관: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 면담자: Marie Adeline-Peix(Directrice exécutive en charge des partenariats régionaux et de l'action territoriale)
7.4 (목)	리옹	10:00	· 방문기관: 오베르뉴·론알프스 지방 국가지사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ecrétariat Général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en Auvergne-Rhone Alpes) · 면담자: Nathalie PICHET(Chargé de mission, CPER 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numérique)
		14:00	· 방문기관: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의회 (Conseil régional en Auvergne-Rhone Alps) · 면담자: Frédéric SCHMIDT(Responsable de Service Contrats avec l'Etat)
7.5 (금)	파리	13:00	· 방문기관: 일드프랑스 도시계획 개발원 (Institut d'Amenagement et d'Urbanisme en Ile de France) · 면담자: Julie MISSONNIER(Agronome, urbaniste, Département Environnement urbain et rural)
7.6 (토)			프랑스 파리 출발 → 인천 도착 (+1)

III. 출장 수행내용

1.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CGET, Commissariat general a l'égalite des territoires)

□ 기관 개요

○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는 지자체 협력 및 지역 통합부1) 산하 기관으로서, 「국토평등위원회 설립에 관한 시행령(2014.3.31.)」²⁾에 근거해 지역개발 및 균형발전 관련 세 개 조직(DATAR, SG-CIV, ACSe)³⁾이 통합돼 설립되었음.

○ 국토평등위원회는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통합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전국적인 도시 정책을 계획, 준비, 집행, △국토 평등 관련 공공정책의 평가,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CPER, Contrat Plan Etat-region)과 같은 국가와 지자체를 결합하는 국토 평등 정책 집행을 위한 계약준비 및 관리, △유럽 기구의 기금과 투자기금 활용 조율, △정책과 프로그램 수립에 지역 대표 및 시민 참여 제고 관리 등의 임무 수행

○ 국토평등위원회 조직 구성

- 도시와 사회통합국 : 도시, 사회통합, 기회 평등 등 총괄 사무국 역할
- 지역전략국 : 지역 현황과 도시 정책 조사를 통한 관찰, 분석, 연구, 전망 수립 담당
- 지역역량 개발국 : 지역균형발전 담당
- 총괄 사무국 : 유럽 업무, 지역 협력 및 협약 체결, 부처 간

1) Ministère de la cohésion des territoires et des relations avec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2) Décret n° 2014-394 du 31 mars 2014 portant création du Commissariat général à l'égalité des territoires

3) La délégation interministérielle à l'aménagement du territoire et à l'attractivité régionale(DATAR), le secrétariat général du comité interministériel des villes (SG-CIV), l'agence nationale pour la cohésion sociale et l'égalité des chances (ACSé)

및 부문 사업 조정

□ 방문 주요내용

: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CPER)의 추진배경 및 운영방식, 6차 계획 계약(2015-2020)의 우선 과제 및 집행 현황, 7차 계획 계약을 위한 해결과제와 전망을 중심으로 조사 수행

○ 1947년 국가계획을 수립하여 2차세계대전으로 파괴된 인프라 재건을 위한 대규모 경제사업 및 활동을 하였고, 1980년대 이전까지 국가계획과 대형 국책사업 및 영토개발에 관한 정부정책이 시행되었음. 1982년 지방분권화법 제정 이후 국가계획과 레지옹 계획의 일관성⁴⁾을 위해 첫 번째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이하 계획 계약)이 시행되었음.⁵⁾

- 1990년대부터 계획 계약은 국가와 레지옹의 정책과 전략을 조정하는 특수한 수단으로 부각되었고 현재까지 총 6차 계획 계약이 추진되고 있음.

○ 계획 계약은 6년의 기간 동안 국가와 레지옹(과 데파르트망/메트로폴/코뮌)이 합의한 우선 과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와 레지옹이 로 재정을 분담⁶⁾ 지원하는 계약⁷⁾임.

- 목적: ①국가에서 레지옹으로 지출되는 각 부처의 일부 재원을 계획 계약의 틀로 일원화⁸⁾함으로써 공공정책을 지역에서 일관되게 집행, ②정부와 레지옹이 정책을 공동 생산하고 전략을 수립하는 프레임워크를 제공하고 지역의 주체들을 동원

4) 1970년대부터 경제위기로 인해 '국가계획'은 실질적인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점차 지침계획으로 변모한 반면에 레지옹이 1972년부터 국가기관이 되면서 국가계획의 지역버전인 '레지옹 계획'이 수립되었음. 이러한 상황에서 지방분권에 의해 지방자치단체가 된 레지옹이 자치 권한과 수단을 부여받으면서 레지옹 계획을 수립하게 되자, 국가와 레지옹 간의 레지옹 계획을 둘러싼 불일치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도입됨.

5) "Les contrats de plan Etat-Region" CGET, 발표자료, 2019.7.1

6) 세부사업별로 편차가 있으나 예산 총액으로 보았을 때 50:50의 매칭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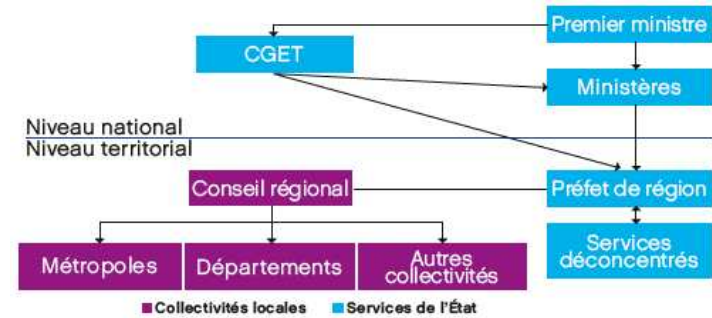
7) 참사원(정부의 행정·입법의 자문 기관과 최고 행정 재판소의 역할을 겸함)은 계약의 조항들이 법적 의무보다는 계약의 목적에 더 부합하는 것으로 간주함.

8) 각 부처가 사업기관 및 사업체에 직접 지출하는 방식은 그대로 유지되며 계획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들에 대해서 해당 부처와 레지옹 간 사업 및 예산 협상을 추진해야 함.

하며 특히 산악, 강 유역 등 여러 지역이 연관된 다지역 간 문제 해결구조 마련, ③다년간 계약을 통해 재정지원구조를 안정화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교차 재정지원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의 지속성을 보장함.

- 계약 프로세스의 세 가지 특징: ①목표와 수단에 대한 '토론의 시간', ②조정된 사업을 실현하기 위한 '상호 약속', ③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공동의 '재정분담'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 준비에 참여하는 핵심 주체들>



* 출처: Contrat de plan Etat-Region: histoire et perspectives, CGET(2017.7)

○ 계획 계약 준비부터 체결까지 단계

- 1단계 : 정부 부처 사업목록 작성

- 레지옹 국가지사(Préfet de région)에게 전달할 부처별 우선 사업 확인 및 진단
- 부처 간 의견을 조율해서 국가의 전략적 우선 과제를 공식화(국토평등위원회의 역할)

- 2단계 : 진단과 지역 전략 수립

- 레지옹 국가지사와 레지옹이 주축이 되어 시행
- 기존의 지역계획(예:도시계획 등)과 조정

* 2016년 SRADDET(국토계획관리, 지속가능발전 및 국토균형을 위한 레지옹 계획) 시행령에 따라 수립된 SRADDET를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에 반영

· 정부 정책과 유럽기금 등과의 일관성 검토

- 3단계 : 협상 위임
 - 국토평등위원회와 정부 부처들에 의한 전략 분석
 - 각 계획 계약마다 총 예산과 예산 지출에 따른 부처 사업 및 예산 확정
 - 총리가 레지옹 국가지사에게 계약 협상 위임
- 4단계 : 지역 협상
 - 레지옹 국가지사서와 레지옹 및 기타 지자체간 협상
 - 관련 기관들의 참여 조직화 및 재정분담 등 협의
- 5단계 : 정부와 레지옹에서 승인
 - 계획 계약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의무사항)
 - 각 계획 계약과 예산 총액에 대해 부처 승인
 - 총리에 의한 레지옹 국가지사서 계약 체결 허가 와 레지옹 의회에서 심의 승인
 - 레지옹 국가지사서와 레지옹 의장 간 계약 체결 완료

○ 6차 계획 계약(2015~2020)의 핵심내용

<국가-레지옹 계획 계획(2015~2020) 6대 우선 과제 및 과제별 투입 예산>

순번	우선과제	주요내용	총 예산 (유로)
1	교통	-지역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필수적인 교통/운송 인프라(도로, 철로, 수로, 항만 등) 구축 및 개선	152억
2	고등교육, 연구, 혁신	-디지털 활용도 제고, 학생 주거 신축 및 재개발, 과학기술 장비 투자, 혁신적 연구 프로젝트 지원, 기술이전 조직 지원 등	35억
3	생태와 에너지 전환	-녹색 성장 지원, 온실가스 효과 감축 프로젝트/순환경제/폐기물 관리/대기 질 개선 지원, 자연 재난 예방 보호 정책 추진 등	56억
4	디지털 기술	-디지털 경제 발전을 위해 전국에 초고속인터넷망 구축, 거버넌스 분야 프로젝트 지원(지리정보시스템, 스마트워크, 오픈데이터, 온라인 공공서비스, 클라우드 등 지역통합전략의 현실화)	9억
5	혁신, 유망산업,	-스마트공장과 9대 산업 솔루션에 대한	4억

순번	우선과제	주요내용	총 예산 (유로)
	스마트공장 (인더스트리 4.0)	미래투자프로그램 지원과 지역의 특화전략 중심 지원	
6	지역개발	-각 지역의 독자적인 지역 균형발전과 통합 과제에 맞는 개발정책 활성화와 집행 지원	46억
-	일자리 (수평적 과제)	-노동시장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취업 알선, 교육훈련, 자활 지원, 고용 관련 공공서비스 개선 등	5억

※ 출처: 국토평등위원회 홈페이지에서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 개요를 표로 재정리
<https://www.cget.gouv.fr/dossiers/contrats-de-plan-etat-region>

- 6차 계획 계약은 총 300억 유로 예산으로 정부가 146억 유로, 레지옹이 160억 유로, 기타 지자체가 8억9900만 유로를 분담9)
- 도시재개발원(Anru), 수자원공사(Agence de l'eau), 환경과 에너지원(Ademe) 등 다수의 정부기관들도 계획 계약에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으며, 미래투자프로그램(혁신, 디지털, 고등 교육 등), 유럽기금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

2. 일드프랑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 Secretaires generaux pour les affaires regionales)

□ 기관 개요

- 1982년 지방분권이 추진되면서 레지옹 단위의 중앙행정조직¹⁰⁾은 레지옹 국가지사(Prefet de Region)과 그를 보좌하는 '지역사업 총괄사무국'(SGAR)로 명명됨. 2007년 '국가 영토행정 개혁'(RéATE) 이후 점차 레지옹 국가지사서의 권한이 조정에서 집행

9) Contrat de plan Etat-Region:histoire et perspectives, CGET(2017.7)

10) 지방분산은 행정구역 내에 국가를 대표하는 행정관을 배치하는 것을 말함. 이 기관들은 자치권이 없으며 법인이 아니다. 오늘날 지방분산 행정관은 국가지사(데파르트망, 레지옹), 교육감, 시장(코뮌) 등이 있으며 이들의 임명권은 중앙권력에 있음. 선출하는 유일한 행정관은 코뮌의 시장으로. 이는 코뮌이 지방분산 기관이자 지방분권 기관인 이중적 성격을 갖기 때문임.

으로 변화함에 따라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은 많은 임무를 수행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역할과 임무

- 국가의 지방 업무 활동을 조율하고 데파르트망 업무와의 유기적 결합 관리
- 국가 정책과 지역과 관련된 유럽연합 정책의 집행을 일관성 있게 관리하고 그 중 일부를 집행하거나 레지옹 국가지사가 조정자로 지명될 경우 일부 지역 간 정책을 집행
- 연구, 평가, 정보통신 기술 활용 분야에서 국가의 지방 업무 활동을 활성화하고, 정부의 정보업무와 함께 지방에서 공공정책과 관련된 국가의 정보통신 사업 실행 조정
- 지방에서 국가의 업무 간 협력 기능을 실행하고 조직을 조율하며 활성화하고, 분산화된 행정 업무 및 부동산과 관계된 프로그램의 운영 예산 조정하며 이러한 범주에서 상호협력 사업 촉진 및 개발
- 지방 행정위원회(CAR, Comité de l'administration régionale)의 사무국 역할 수행하고 있음. 그 자격으로 재정법과 관련해 개정된 2001년 8월 1일 국가조직법 n°2001-692의 제7조 제2항 제1호에서 정한 프로그램을 지역에서 실행하기 위한 결정과 고시사항들의 후속조치를 준비함.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조직 구성

- 전체 : 경제, 사회, 법률, 재정, 환경, 도시개발계획, 지속가능한 발전, 지역의 디지털 개발, 디지털 기업, 도시 정책 등을 촉진, 활성화 및 조정하는 부서 등이 있음. 연구 담당은 공공정책에 대한 연구, 홍보, 평가 등의 임무 수행에 참여함.
-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인 지역개발국의 임무

- ① 지역개발 분야에 투입되는 재정 수단을 관리하고, <지역개발 정책의 촉진과 조율> 관련 프로그램 운영예산을 지도함. 데파르트망 지사와 협력 하에 군사기지 전환 조치를 실행하고 도서관 또는 미디어도서관 개발을 위해 지자체에 배분된 보

조금을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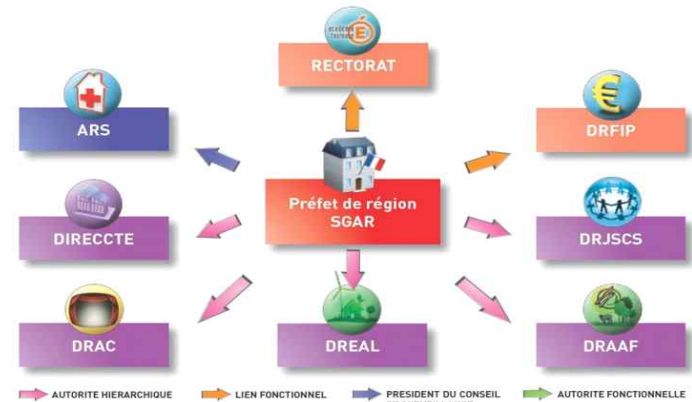
- ② 계획 계약의 재정 관리를 담당하며 지자체의 수단과 지역에 대한 투자역량을 모니터링하고 분석하는 임무도 수행함. 특히 지자체의 외부 사업을 목적으로 제출된 보조금 요청을 심리함.

□ 방문 주요내용

: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과 관련한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역할과 운영방식을 중심으로 방문조사가 이루어짐.

-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은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을 준비하기 위해 부처 간 조정 작업을 담당하고, 계획 계약의 우선 과제에 적합한 세부사업을 기술적, 전략적 차원에서 다룰 때 교육청, 환경청, 도시공사, 주택공사, 철도청 등 레지옹에 분산되어 있는 중앙행정기관들을 동원할 책임이 있음.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 준비 및 실행에 참여하는 레지옹 단위 중앙행정기관들 관계도>



SGAR : Secrétariat Général pour les Affaires Régionales • DRAC : Direction Régionale des Affaires Culturelles • DREAL : Direction Régionale de l'Environnement, de l'Aménagement et du Logement • DRAAF : Direction Régionale de l'Alimentation, de l'Agriculture et de la Forêt • DRJSCS : Direction Régionale de la Jeunesse, des Sports et de la Cohésion Sociale • DIRECCTE : Direction Régionale des Entreprises, de la Concurrence, de la Consommation, du Travail et de l'Emploi • DRFIP : Direction Régionale des Finances Publiques • ARS : Agence Régionale de Santé

※ 출처: "Les contrats de plan Etat-Region" CGET, 발표자료, 2019.7.1.

○ 레지옹의 배타적인 대화창구로서 역할을 함. 정치적 측면에서 총리는 레지옹 국가지사에게 레지옹 의장과 계획 계약의 목표와 투입할 수단들에 대해 협상할 권한을 위임함. 기술적 측면에서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이 레지옹과 전략적 논의 준비 및 공유 문서 생산, 계약서 작성 등을 담당함.

○ 중앙과 지방 간 중계자 역할로서 중앙정부, 특히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국토평등위원회(CGET)가 제공하는지침과 정보를 레지옹에 전달하고, 총리의 중재나 부처 간 규정을 필요로 하는 난제와 장애요소들을 발굴할 뿐만 아니라 때로는 레지옹과 공동으로 요청사항을 제기하는 대변인으로서의 역할도 함.

○ 다지역 간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CPIER)의 경우 사업 규모와 관련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해당 다지역 간 계획 계약만을 담당하는 특별 국가지사를 임명하여 다지역 간 계획 계약 실행 및 관리를 수행하기도 함.

※ 다지역 간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CPIER, Contrat de plan interregional Etat-Region)의 하나인 「발레드라센 계획계약(Contrat de plan interregional Vallee de la Seine)」에는 일드프랑스와 노르망디, 두 레지옹과 관련 기타 지자체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공간 관리와 지속가능한 발전, 강을 이용 또는 연결한 교통 및 운송 인프라 정비, 산업·물류 경제개발과 고등교육과 연구개발 등의 과제와 연결된 지역개발 계획이 세부사업에 반영됨.(출처:Contrat de plan Etat-Region Ile de France 2015-2020)

○ 계획 계약은 계약의 실행을 위해 실행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완되기도 함. 이 경우는 다음 두 가지 목적을 위한 것임.(출처:Contrat de plan Etat-Region:histoire et perspectives, CGET(2017.7))

- 첫째, 계획 계약에 사인을 하지 않는 기관들(예를 들어 프랑스 국철, 대학 등)의 재정 부담을 공식화하거나 우선 과제에

다른 세부사업의 실행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이것은 계획 계약이 단순히 국가와 레지옹 간 논의에 국한되지 않으며, 복합적인 사업을 중심으로 많은 관련 기관들을 동원하는 계획 계약의 사명을 확인시키는 의미도 있음.

- 둘째, 계획 계약에 명시된 세부사업들을 지역화하는 의미도 있음. 일부 레지옹에서는 계획 계약 안에 실행 협약의 주체가 되는 지자체(데파르트망/메트로폴/코뮌, 도시연합 등)이 사인을 하도록 하여 지역을 초월하는 사업의 경우 개입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함.

○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 실행을 위한 거버넌스는 정책(정치적) 기구와 실행(기술적) 기구로 구성됨.

- 레지옹 국가지사와 레지옹 의장이 주관하는 정책 기구는 계획 계약의 방향, 세부사업의 정의, 프로그램 집행에 대한 정기적인 모니터링, 계획 계약 집행의 연간 결산 승인 등을 수행

- 실행 기구는 계획 계약의 우선과제별 세부사업을 추진하는 사업기관과 재정분담 기관들을 관리함. 실행 기구는 계획 계약에 정의된 전략적 방향이 올바르게 실행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사업기획 위원회와 함께 업무를 수행함.

<계약 계획 실행위원회 (프로방스-알프스-코타쥐르의 계약 계획 실행 거버넌스 예시)>



Gouvernance du CPER Provence-Alpes-Côte-d'Azur

※ 출처: Contrat de plan Etat-Region:histoire et perspectives, CGET(2017.7)

3. 일드프랑스 레지옹 의회(Conseil Régional en Ile de France)¹¹⁾

※ 2016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공화국의 새로운 국토조직에 관한 법(loi portant sur la Nouvelle Organisation Territoriale de la République(NOTRe))”에 따라 프랑스 레지옹은 22개에서 13개로 축소되었고, 상기 법률에 근거해 정해진 사업 분야를 담당함. 여기에 데파르트망(관광, 스포츠, 문화 등)과 협력하는 업무까지 추가되면서 레지옹은 더 많은 재량권을 갖게 되었음.

일드프랑스 지방 개요

- 인구 : 12,246,234명 (첫 번째 레지옹)
- 면적 : 12,011km²(12번째 레지옹), 인구당 면적 1,020 habitants/km²
- 지역총생산 : 6,690억 유로 (첫 번째 레지옹)
- 8개 데파르트망과 1,276개 코뮌

※ 출처 : Insee - Estimations de population (résultats provisoires arrêtés fin 2017)
 Insee - Comptes régionaux 2015 (les chiffres ont été arrondis)
 IGN : Insee,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code officiel géographique

□ 기관 개요

- 1976년에 신설된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1982년 지방분권화법에 근거해 △보건, 문화, 교통, △평생교육, 직업교육 및 고용, △녹지공간과 지역 공용시설, △고등학교 설립 및 관리, △도시계획과 환경, △경제개발(경쟁거점 활성화, 경제구조에 대한 지원, 경제개발/혁신/국제화 지역계획(SRDE-II) 실행 등과 같은 권한¹²⁾을 부여받음.
- ※ 경제개발/혁신/국제화 지역계획(SRDE-II)은 기업 지원, 국제화 지원, 부동산 투자 및 기업 혁신 지원에 대한 방향 정립, 유럽프로그램 관리 등을 포함한 계획

11) 선출직으로 구성된 지방의회가 1982년 데페르베법 이전에는 국가지사(préfet)가 가졌던 지방행정의 집행권을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성격도 가짐.

12) 지역 단위 중앙행정기관이었던 레지옹은 지방분권화 이후 코뮌, 데파르트망, 특별자치체와 같이 자치 권한 및 수단을 갖는 법인인 지방자치단체가 됨.

□ 방문 주요내용

- 5차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2007~2013) 수립 과정과 평가
 -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우에는 1994년에 채택된 지역발전계획(SDRIF,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et de développement du territoire)을 수립해왔고, 5차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2007~2013)을 준비하는 시기와 지역발전계획(SDRIF) 감사 첫 번째 단계가 일치했기 때문에 지역발전계획(SDRIF)의 전략적 선택과 목표의 일부가 5차 계획 계약의 중요 프로젝트(교통, 농촌개발, 도시농업유지정책 등)에 반영되었음.
 - 그러나 5차 계약 체결 시 국가전략이 명확히 정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작성되었다는 점, 중간평가와 계약 실행에 대한 점검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함으로써 6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대책들이 제안되었음.(출처: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에 관한 상원 보고서¹³⁾, 2014.7)
- 일드프랑스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2015~2020) 주요내용
 - 국내총생산의 31%, 유럽내총생산의 4.3%의 비중을 차지하는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유럽 차원에서 제일 큰 레지옹임. 일드프랑스 레지옹에서만 510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고 있음.
 - 국가와 레지옹 발전에 전략적 우선 과제 실행에 투자를 집중하고 조율하기 위해 국가는 2,902,274유로, 일드프랑스 레지옹은 4,428,210 유로의 예산을 투입
 - 계약의 우선과제: 교통, 고등교육과 혁신, 생태 및 에너지 전환, 디지털 경제, 지역개발과 일자리
 - ※ 공공사업 분야는 각각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추진되며 그것은 일드프랑스 레지옹의 경제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공정책의 타당성을 입증해줄 것임. 또한 계획 계약은 수도권의 미래를 위한

13)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sur l'enquete de la Cour des comptes relative aux contrats de projets Etat-régions (CPEP), Par M. Alberic de MONTGOLFIER

중요한 선택 방향을 제시할 전망 연구를 포함하고 있음.

- 일자리와 지역경제 개발은 계약의 핵심으로써 누보그랑파리 프로젝트는 인프라 건설을 위해 10년 간 매년 5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2030년까지 지속가능한 8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함. 또한 일드프랑스의 지역 간 불균형(특히 동-서간)을 단계적으로 해소하는데 기여
- 국가는 수도권을 위해 10년에 걸쳐 120억 유로가 투입되는 새로운 미래투자계획과 <새로운 프랑스 산업>을 위한 34개의 계획도 수립하였음.
- 계획계약에는 기간, 중간결산, 자원, 재정프로그램 편성방안, 계약주체 및 파트너들, 시행협약본문, 계약 당사자 간 상호 원칙, 향후 계약수정조건 등이 명시

<일드프랑스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2015-2020) 우선과제별 예산>

우선과제	합계	국가	레지옹
교통	5314.04	1877.63	3436.41
누보그랑파리	4459	1412	3047
이동수단 사업	487.34	257.13	230.21
도로	367.7	208.5	159.2
교육, 혁신, 고용	1051.37	539.7	511.67
고등교육과 연구	788.52	394.52	394.00
유망산업과 일자리	30	15	15
디지털 경제	232.85	130.18	102.67
생태와 에너지 전환	323.21	165.68	157.53
지역개발	641.864	319.264	322.6
합계	7330.484	2902.274	4428.21

* 출처: Contrat de plan Etat-Region Ile de France 2015-2020

4. 프랑스 공공투자은행(BpiFrance)

□ 기관 개요

- 프랑스 공공투자은행은 2005년 공공투자은행(BpiFrance)그룹

조직에 관한 법에 근거해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3개의 전문 정책금융기관, 즉 공탁예금고(CDC), 사회혁신기금(FSI), 혁신청(Oséo) 등이 통합돼 결성된 기관임.

- 공공투자은행은 파리 인근 메종알포르 지역에서 본부를 두고 전국에 48개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어 지역의 중소기업에 대한 밀착 지원에 있어 전문성을 발휘하고 있음.
- 공공투자은행의 운영방식이 분권화되어 있어 재정지원에 대한 의사결정의 90%를 지역사무소에서 하고 있음.

□ 방문 주요내용

- 독자적인 예산으로 기업 지원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동시에 정부 부처(재경부, 농업부, 환경부 등)으로부터 받는 사업 예산과 지방자치단체들로부터 받은 기금, 유럽 기금 등을 토대로 공공 이익에 복무하는 기업 지원 활동을 하고 있음.
- 재원에 따라 공공 투자자들(정부, 지방자치단체, 유럽연합)와 함께 전략적 투자 우선순위(유망산업, 혁신, 관광, 에너지 전환 등)를 결정
- 2012년 설립 이후 중소기업의 80%에 해당하는 306,000개 기업에 총 1,070억 유로를 지원하였음. 개입하는 방식은 보조금, 대출, 보증, 자본금 투자 등 다양함.
-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 기업의 재정분석(기업 적격성, 기업의 프로젝트의 특수성, 프로젝트의 위험도 등), 시장분석(시장 점유 가능성, 발전 확대 가능성, 시장 포화정도 등) 등을 진행 하고 이를 위해 재정 및 기술전문가, 해당 시장 전문가 등의 자문과 협의를 수행함.
- 공공투자은행이 기업 지원 전문가들과 내리는 빠른 결정과 개입 방식은 행정비용을 낮추고 공공예산을 적절하고 합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좋은 모델이라고 할 수 있음.

- 위험도가 높은 혁신 기업 지원의 경우에는 공공투자은행의 독자적인 예산을 사용함으로써 공공투자은행의 예산 균형을 도모
- 공공투자은행은 기업의 모든 성장단계(창업, 양도, 혁신 등) 지원과 새로 등장하는 주체(Station F와 같이 프렌치테크와 연관된 스타트업 엑셀러레이터 등), 전략적 분야(미래 유망산업, 에너지 전환, 교통 등) 등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음.
- 국가-레지옹계획 계약의 우선과제(교통, 고등교육/연구/혁신, 혁신/유망산업/스마트공장 등)는 공공투자은행의 2020-2030 전략사업과 연결되어 있음.
 - 특히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취약한 지역에서 성장 잠재력이 있는 1,000개의 신생기업을 동반 지원(소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터 구축)하는 정책을 실행하고 있음.¹⁴⁾
- 대부분 전국 단위의 혁신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지원해왔던 미래투자프로그램(Programme d'investissements d'avenir, PIA)을 개편하여 3기(2018~2020)에는 지역 단위 프로젝트 지원을 강화하였음. 지역 미래투자프로그램 예산은 100백만 유로에서 500백만 유로로 상향 조정되었으며 국가와 레지옹이 50:50으로 매칭하는 방식임.
 - 공공투자은행은 지역의 기업지원센터나 사업수행기관이 아닌 기업을 직접 지원함.
- 이러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공공투자은행 내에 전국위원회(Comité d'orientation national, CNO)와 지역위원회(Comités régionaux d'orientation, CRO)와 같이 전국과 지역을 아우르는 두 개의 거버넌스 기구를 두고 있음.
 - 지역위원회의 경우 레지옹이 주도하여 지역의 경제 주체들과 연계해 공공투자은행의 지역사업과 지역의 경제발전과 혁신전

략의 결합성을 모니터링함.

- 지역에 기반한 산업 발전, 지역 간 불균형한 발전을 해소하기 위해 기업의 모든 단계에서의 성장을 위한 지역 생태계 강화를 전략적으로 지원하고 있음.
- 공공투자은행은 정부와 공탁예금금고의 출자금을 기반으로 자기 자본을 보유하고 있으며, 각 정부 부처에서 유입되는 기금 외에도 레지옹으로부터 기금을 위탁받아 레지옹의 특성과 필요(지역혁신기금, 지역보증기금 등)에 맞게 해당 지역의 중소기업을 직접 재정 지원하고 있음.

5.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지역사업 총괄사무국

※ 레지옹 지역사업 총괄국의 역할과 기능은 레지옹별로 차이가 없으므로 일드프랑스 레지옹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방문내용 참조

□ 기관 개요

- 리옹에 소재하는 오베르뉴-론알프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은 2016년 오베르뉴 레지옹과 론알프 레지옹이 통합되면서 중앙 산악지대와 연구기술 부문을 보좌하는 지역대표를 포함한 클레르몽페랑 사무실을 별도로 두고 있음.
- 오베르뉴-론알프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의 역할 :
 -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국가지사의 권한에 따라 관할 지역(레지옹과 데파르트망들)에서 국가의 업무, 즉 지역개발과 경제, 사회정책의 집행을 지원하고 있음.
 - 부처 간, 지역사업 성격의 프로젝트와 공공정책을 활성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을 실행
 - 지방분권화의 변화에 맞춰 유럽프로그램을 관리
 - 지방분권화, 행정 수단의 협력 및 현대화 정책에 대한 부처

14) Plan Strategique 2018-2023, BpiFrance

간 조율

- 레지옹과 데파르트망 사업, 정부기관 지역 기관장 등과의 조정 및 관리 등

□ 방문 주요내용

- 오베르뉴-론알프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은 직원 8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국가-레지옹 계획계약을 담당하는 부서인 공공정책 조정 집행국에서는 론-지중해 유역, 지속가능한 발전, 환경, 농업, 농촌개발, 에너지, 연대, 시민성, 주거, 도시, 지역 개발과 디지털, 인프라, 교통, 기업, 혁신, 직업훈련, 고용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 오베르뉴-론-알프스 지역은 인구 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나 프랑스 전체에서 두 번째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3개 산맥(쥬라, 알프스, 마시프 센트랄)과 손/론강과 같은 자연유산 및 수많은 문화역사 유산을 보유하고 있고, 전통적으로 산업이 크게 발전했던 아주 복합적인 지역임.
 - 현재 경제적으로 아주 역동적인 지역으로 출생뿐만 아니라 인구 유입이 계속 증가 추세(지난 6년 간 30만 명 이상 증가)에 있음.(출처: Contrat de plan entre l'Etat et la Region Rhone-Alpes 2015-2020 Avec la participation des Departements, Metropoles et territoires de Rhone-Alpes)
- 그러나 서북부에는 기업 수가 감소하고 오래된 공장이 폐쇄되는 등 경제활동이 축소되고 있고, 남서부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으로 인구 고령화로 인한 서비스 접근성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 등 지역의 불균형 해소의 과제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에도 국가에서 정한 전략적 우선 과제 외에도 이 지역 특수성 및 현안을 반영한 수평적 과제들과 중소기업의 다양한 다지역 간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을 체결

결하였음.

- 예를 들어 나노테크놀로지의 경우 이 지역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산업이어서 지역산업 육성 차원에서 계획 계약에 반영하려고 하였음. 그 외에도 대규모 예산과 다년도 추진사업으로 진행되는 것이 필요한 경우 계획 계약에 포함하려고 하나, 그렇게 안 될 경우에는 해당 부처와 협상을 통해 별도의 트랙으로 예산을 지원받기도 함.
- 계획계약은 국가와 레지옹이 지역 발전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을 하여 공동의 과제를 중심으로 재정지원을 분담하는 것으로 지역의 입장에서는 균형과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예산의 가독성을 높이는 계기임.
 - 계획계약의 세부사업 예산은 한 축으로는 연구조사(사업계획을 구체화하거나 신규 사업계획 개발 시 반영), 다른 한 축으로는 사업 실행으로 구성됨.
- 2016년에 계획계약이 본격적으로 집행되기 시작함. 지방선거에 따라 2015년 말 지방자치단체에 새로운 집행부가 구성되고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레지옹(오베르뉴와 론알프스, 두 레지옹의 통합)이 시작되었으나, 두 레지옹이 각각 맺은 6차 계획 계약을 통합하지는 않았으며 2018년에 예정된 중간점검은 추진되지 않았음.(전국적으로 동일한 상황)

6.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의회

<p>오베르뉴-론알프스 지방 개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구 : 8,037,059명 (2번째 레지옹) - 면적 : 69,711 km² (3번째 레지옹), 1인당 면적 115 habitants/km² - 지역총생산 : 2,500억 유로 (2번째 레지옹) - 12개 데파르트망, 4개 메트로폴(리옹, 클레르몽페랑, 그르노블, 생테티엔느)와 4,095개 코뮌
--

※ Sources : Insee - Estimations de population (résultats provisoires arrêtés fin 2017)
 Insee - Comptes régionaux 2015 (les chiffres ont été arrondis)
 IGN ; Insee, recensement de la population, code officiel géographique

□ 방문 주요내용

- 6차 계획 계약 체결 당시에는 오베르뉴와 론알프스 레지옹이 통합되기 전으로 오베르뉴 레지옹과 론 알프스 레지옹 각각 계획 계약이 체결되었음. 두 레지옹의 통합 이후에도 기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으나 내용적으로 일관성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2016년 레지옹 선거 이후 계약내용이 수정되거나 세부 사업이 추가되기도 하였음.
- 6차 계획 계약에서 5대 우선과제는 교통, 고등교육과 연구/혁신, 혁신/유망산업/스마트공장, 초고속통신망/디지털, 생태 및 에너지 전환임.
 - 일자리 외에도 문화, 도시정책과 도시재생, 남녀평등 등의 수평적 과제가 제안되었음.
- 계획 계약 외에 실행 협약 체결 여부는 지역의 상황 및 조건에 따라 달라지는데, 론-알프스 레지옹의 경우, 특히 수평적 과제와 관련하여 8개 데파르트망과 데파르트망 계약을, 리옹/그르노블/생테티엔느 메트로폴과는 메트로폴 협력을 위한 지역협약 등을 맺음.
 - 이러한 계약이나 협약은 각각 독자적인 계획 수립 프로세스와 서명 절차로 진행됨.
- 거버넌스 관련하여 평가위원회(연간 평가를 수행하며, 확대 평가위원회도 18개월마다 진행), 운영위원회(분기별 진행), 과제별 위원회, 지역위원회를 구성하여 계약을 관리하고 있음.

<론-알프스 레지옹 6차 국가-레지옹 계획계약 우선과제별 예산>

우선과제	합계	국가	레지옹
교통	892.21	571.510	320.700
고등교육, 연구, 혁신	281.220	161.560	119.660
생태 및 에너지 전환	287.420	157.100	130.320
경제(혁신, 유망산업, 스마트공장)	590.100	151.200	438.900
디지털	702.736	404.436	298.300

* 이외 정부기관의 지원금, 기금에서 투입되는 예산을 더 하면 국가는 2009.256 백만유로를, 레지옹은 2030.880 백만 유로를 투입

※ 출처: Contrat de plan entre l'Etat et la Region Rhone-Alpes 2015-2020

<다지역 간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이 체결된 지역>



- 마씨프센트랄 산악지대를 둘러싼 다지역간 계획 계약(Contrat plan interregionaux Etat-regions)뿐만 아니라 크고 작은 다지역 간 계획 계약이 추진되고 있으며, 실행위원회 회의에는

관련 부서(산악, 농촌, 강유역 등) 담당이 참석하고 있음.

- 7차 계획 계약 준비는 6차와 달리 정부에서 우선과제를 정해서 내려오는 방식이 아니라 레지옹 단위 중앙행정기관과 레지옹/데파르트망/메트로폴 등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안하는 과제리스트가 바텀업 방식으로 제안돼 선택지가 다양해질 것으로 예상됨. 또한 6차 세부사업 중 연장된 사업 또는 실행이 안되었지만 필요한 사업, 신규 프로젝트들이 포함될 수 있음.

7. 일드프랑스 레지옹 도시개발연구원

(Institut d'aménagement et d'urbanisme, IAU en Ile de France)

□ 기관 개요

- 일드프랑스 도시개발연구원은 일드프랑스 레지옹 산하 기관으로 일드프랑스의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립하는 단계에서 연구, 조사, 진단, 분석, 교육 등을 제공, 지원함.
 - 특히 도시개발지역국(DRIEA, direction régionale et interdépartementale de l'Équipement et de l'Aménagement)과 협력 하에 부동산 시장 변화 관찰 및 부동산 관련 정보 제공을 담당하는 ORF(Observatoire régional du foncier)의 사무국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레지옹과 기초 지자체에 교통 및 도시계획, 건설 계획 수립 시 부동산 분석 등을 지원함.
- 일드프랑스 도시개발, 환경, 경제와 사회, 교통 등 다양한 문제에 대한 연구에 기초한 정책 제안을 위해 200명의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으며, 특히 학제 간 연구 및 분석을 일드프랑스 지방의 매력도 향상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적 아이디어를 제출함.

□ 방문 주요내용

- 계획 계약 체결 전 실시된 환경영향평가가 관련 전문성을 토대로 6차 국가-레지옹 계획 계약과 관련하여 일드프랑스 환경분석에 참여하였음. 환경영향 평가를 바탕으로 계획 계약 수립 시 환경 문제를 더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음.
 - 이러한 절차를 의무화하는 것은 사업 기획뿐만 아니라 세부사업 실행 전 환경에 대한 고려사항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계획 계약 과제별 과제 실행목표 및 주의사항>

Volet du CPER 2015-2020	incidences probables positives attendues de la mise en œuvre du CPER	Vigilance à porter sur certains enjeux environnementaux dans la mise en œuvre du CPER
Volet Mobilité multimoda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élioration de la qualité de l'air, réduction d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réduction du bruit lié au transport routier grâce au développement des infrastructures de transports en commun et de lignes ferroviaires interrégionales • Réduction des points noirs (bruit, pollution), liés au traitement de la congestion automobile et au développement des transports de matériaux et de déchets par voie d'eau • Report modal de la logistique routière vers la logistique fluviale, avec des conséquences positives sur les émissions de gaz à effet de serre et la pollution de l'air, et sur la distribution de produits agricoles, de biomasse énergie et de matériaux 	<ul style="list-style-type: none"> • Fragmentation possible des espaces ouverts • Dégradation possible du feuve et des zones humides par le développement du transport par voie d'eau • Augmentation des besoins en matériaux • Augmentation des besoins en électricité • Augmentation des volumes de déchets de chantier et déchets inertes
Volet Enseignement supérieur et recherche, innovation, numérique et emploi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mélioration des performances des bâtiments en termes de consommation énergétique et utilisation de sources d'énergie alternatives, de confort de bruit, de qualité de l'air intérieure, d'économie de consommation d'eau et d'amélioration de la gestion des déchets • économie de ressources en matériaux par le choix de rénovations plutôt que de démolitions/reconstructions • développement de la recherche sur les aspects environnementaux • sensibilisation des jeunes aux problématiques environnementales • recherche et développement industriel favorable aux progrès dans les domaines du transport et enjeux associés (économie d'énergie, de gaz à effet de serre, réduction des nuisances) et dans le domaine des éco-industries (économie de ressources, gestion des déchets, ...) • développement de l'économie numérique favorable à la réduction des déplacements motorisés (pollution air, bruit, gaz à effet de serr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isque d'accroissement de l'effet d'îlot de chaleur urbain (impermeabilisation) • Enjeux environnementaux localisés liés au site d'implantation des opérations (risques, pollution des sols, qualité des sites et des paysages, accès à des espaces verts, biodiversité) • Amélioration de la puissance et de l'autonomie des batteries à traiter en lien avec la production d'énergie et le recyclage des batteries

* 출처: CPER 2015-2020 ILE-DE-FRANCE EVALUATION ENVIRONNEMENTALE, IAU Ile-de-France, 2015,7

- 6차 계획 계약은 사실상 기 수립된 많은 국가계획과 지역계획, 부문 발전전략 및 프로그램 등을 실행에 옮기는 수단이기도 하

기때문에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공공정책의 조정과 선택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는 것임.

<계획 계약 과제별 환경 영향 평가표(예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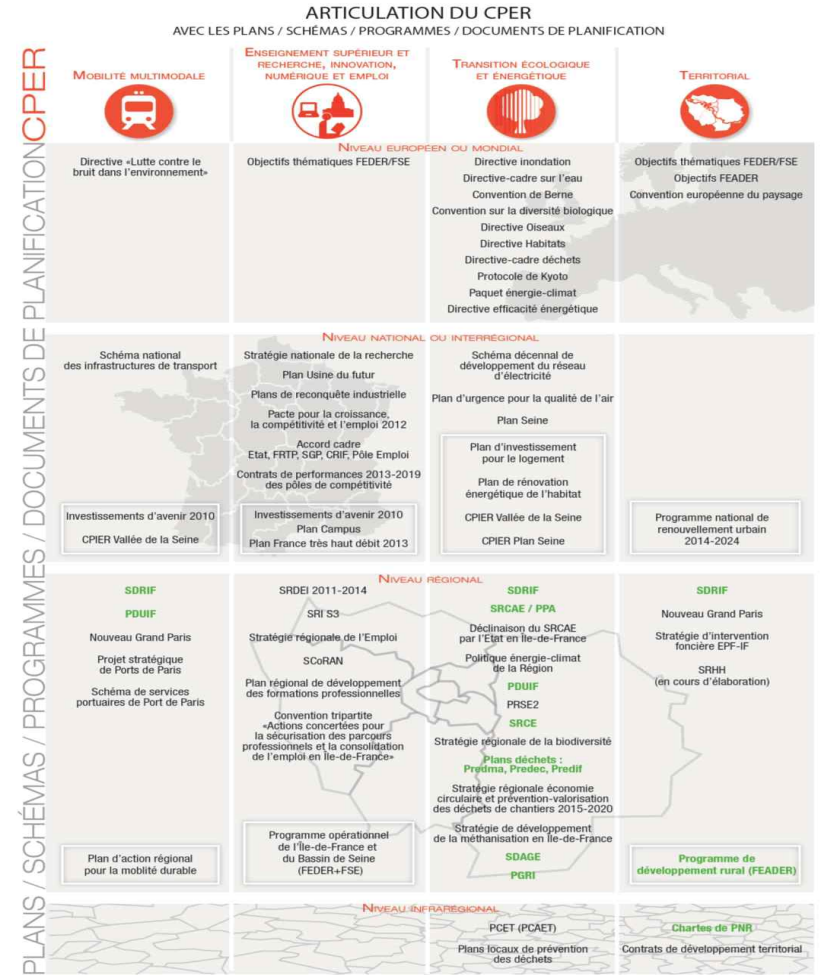
Tableau récapitulatif des incidences potentielles sur l'environnement. A lire avec le commentaire global de la page suivante

	Volet MOBILITE MULTIMODALE	Changement climatique	Espaces ouverts et paysages	Ressources naturelles	Cadre de vie
	<ul style="list-style-type: none"> Code couleur Indicateur de l'impact Nature de l'impact Impact accumulé Impact résiduel 				
NIVEAU EUROPEEN	Moderniser le réseau existant, développer l'ensemble des réseaux, préparer les futurs projets, reconfigurer les gains d'interconnexion				
NIVEAU NATIONAL	Etudes et interventions générales				
	Infrastructures ferroviaires				
	Infrastructures fluviales				
	Infrastructures portuaires				
	Infrastructures routières				

※ 출처: CPER 2015-2020 ILE-DE-FRANCE EVALUATION ENVIRONNEMENTALE, IAU Ile-de-France, 2015,7

- 예를 들어 대부분 2020-2030 계획이 수립돼 있는 지역발전계획(SDRIF), 환경계획(SRCE), 기후/대기/에너지계획(SRCAE), 홍수위험관리계획((PGRI), 일드프랑스 도시이동계획(PDUIF) 등과의 사업 연관성 및 상호 영향 등을 파악, 분석

<계획 계약을 위한 환경영향 평가 시 기존 계획 및 전략, 프로그램들과의 정합성 확인도>



DOC documents dont l'articulation avec le CPER est détaillée dans l'évaluation environnementale
documents comprenant un volet financier
Le volet prospectif ne présente pas de liens précis avec d'autres documents existants

※ 출처: CPER 2015-2020 ILE-DE-FRANCE EVALUATION ENVIRONNEMENTALE, IAU Ile-de-France, 2015,7

IV. 출장의 성과(또는 시사점)

□ 계획 계획에 대한 평가¹⁵⁾

○ 국가 차원에서 계획 계획의 평가는 국토평등위원회에서 주도하고, 레지옹 차원에서는 계획 계약 평가관리위원회 또는 기구와 연관된 특별 평가위원회가 평가를 수행함.

- 평가는 계획 계약에 의해 예산이 지원된 사업의 합목적성과 계획 계약을 통해 창출된 부가가치 등 계약의 목표를 대상으로 함. 계획 계약의 특성이 지역 속에서 공공정책의 실행을 제고한 방식을 조사하는 것임

○ 국가 차원의 평가 기능:

- 지역 평가를 위한 방법론적 도구 제공과 실행에 참여
- 계약의 실행 개선
- 계약의 효과 확인과 분석

○ 레지옹 차원의 평가는 과제별 목표 달성 속에서 계획 계약의 역할을 측정하고 국가와 레지옹의 지역별, 부문별 정책의 실행 속에서 계획 계약의 구체적 활용 효과를 확인하고, 계약의 실행 가이드를 위해 주로 과제 수행을 평가 대상으로 함.

- 이러한 평가는 국가 우선순위와 관련하여 레지옹 차원에서 확정된 목표와 지역의 과제라는 관점에서 계획 계약의 효율성, 일관성, 적합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함.

- 레지옹 차원의 평가는 지역에 미치는 계약의 영향을 바로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목표 대비 실행을 중심으로 평가하고, 레지옹 통합 재편으로 인한 새로 포함된 과제 또는 사업 범위 대비 아직 종료되지 않았거나 시작하지 않은 프로젝트의 타당성과 적합성을 강조하고, 실행 도중에 발견된 장애요인을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필수적임.

□ 6차 계획 계약에서 발생한 문제

○ 6차 계획 계약의 추진과정에서 △2015년 레지옹 집행부의 변화와 레지옹의 통합, △레지옹별, 우선과제별 집행률 차이, △교통 인프라 재정 지원금 미확보로 인한 교통 분야의 집행 지체(평균 집행률 48%보다 낮은 40% 기록), △정치적인 이유로 인해 중간점검 미이행 등의 문제 발생하여 현재 진행 중인 6차 계획 계약 기간을 둘러싼 논쟁이 진행됨.

<6차 계획 계약 집행률-국가예산을 중심으로-(2018.12.31.)>

Exécution des CPER au 31/12/2018			
Crédits Etat			
Volets du CPER	Montants contractualisés révisés	AE 2015 -2018	% d'exécution
Mobilité multimodale	7 440 360 667 €	2 939 193 429 €	40%
Enseignement supérieur, recherche	1 500 356 400 €	931 586 135 €	62%
Transition écologique et énergétique	2 901 211 000 €	1 702 895 890 €	59%
Territorial	1 265 472 400 €	681 629 727 €	54%
Culture	253 650 300 €	156 105 292 €	62%
Emploi	210 100 000 €	127 526 471 €	61%
Total général	13 571 150 767 €	6 538 936 943 €	48%

* 출처: "Les contrats de plan Etat-Region" CGET, 발표자료, 2019.7.1

○ 이러한 배경 속에서 현재 6차 계획 계약을 2021년 또는 2022년까지 연장할 것인지 논의를 하였으나, 그렇게 할 경우 2020년에 100% 사업이 완료되는 고등교육 및 연구개발과 같은 우선과제의 경우 공백기가 발생할 위험이 있고 2021년 지방선거와 2022년 대통령/의회 선거 기간과 겹쳐 일정 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현 계획 계약을 종료하고 2021년부터 새로운 계약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현 시점부터 7차 계획 계약(2021~2027)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형성

15) 출처: Contrat de plan Etat-Region:histoire et perspectives, CGET(2017.7)

□ 7차 계획 계약 수립 관련 변화된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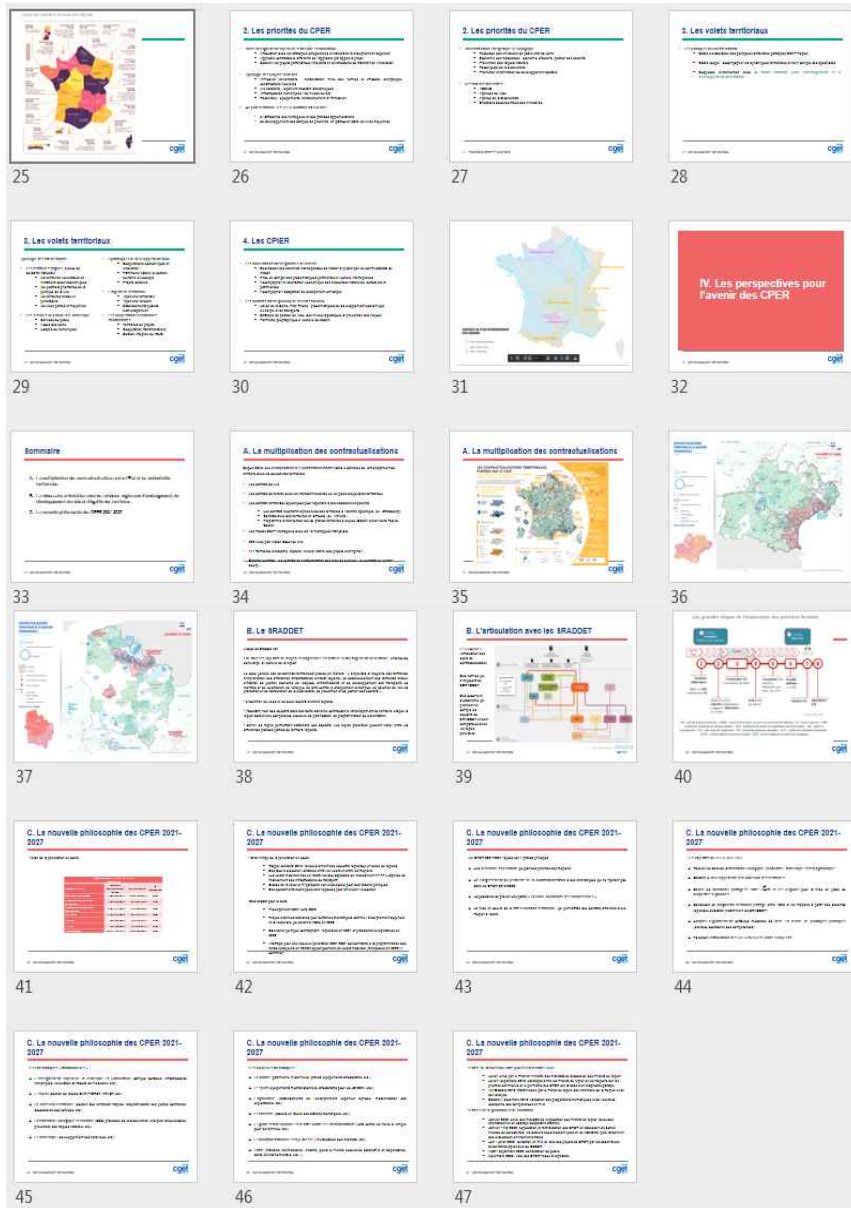
- 7차 계획 계약(2021-2027년)의 목표
 - 에너지, 생산성, 디지털, 인구변화에 대한 과제 도출
 - 국가 균형 발전을 보장
 - 지역 모델을 실현하기 위해 국가와 레지옹 간 도전과제 공유
 - 기 수립된 도시계획, 지속가능발전, 국토균형을 위한 지역계획(SRADDET, schéma régional d'aménagement, de développement durable et d'égalité des territoires)를 기반으로 국가와 레지옹 간 지역 진단 공유
 - 지역에 맞는 공공정책 실현 방식 모색
 - 유럽기금과 계획 계약의 조율

- 7차 계획 계약의 새로운 철학
 - 전통적인 테마(우선과제) : 고등교육, 연구와 혁신(지속가능한 캠퍼스, 디지털 인프라, 의과대학의 리노베이션), 고용(Carif-oref, ARACT 등 네트워크 지원), 지역 균형(낙후지역 개발 지원, 중소도시 시내 중심 활성화, 서비스 접근성 제고 등), 생태와 연대 전환(사회연대경제, 생물다양성 보호, 신재생에너지, 자연재해예방 등), 디지털(공유공간 개발 등)
 - 새로운 테마 추가 : 문화(문화유산, 디지털 뮤지엄, 대형 구조설비 등), 스포츠(복합기능 장비, 2024 하계 올림픽 조직 등), 농업(농업 관련 대학 교육, 농업의 현대화 등), 관광(관광지 개발 사업 등), 남녀평등 및 차별 반대 운동(여성 고용을 저해하는 요인 해소 등), 공공교육과 청소년(기숙사 활성화 등), 건강(주거, 원격 치료, e-sante, 환경 보건, 자율성과 의존성 관련 연구 및 산업클러스터 등)

V. 참고자료

※ 발표자료 (Les contrats de plan Etat-Region” CGET, 2019.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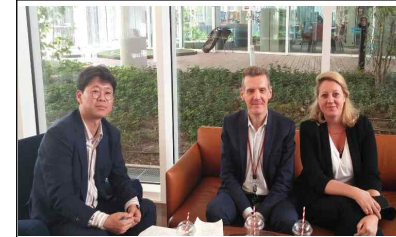


※ 출장관련 사진



프랑스 국토평등위원회(7.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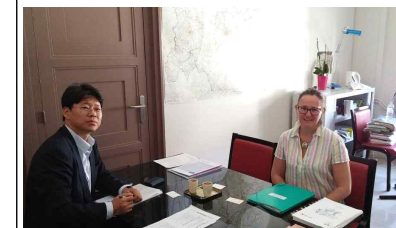
일드프랑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7.2.)



일드프랑스 지역사업 총괄사무국(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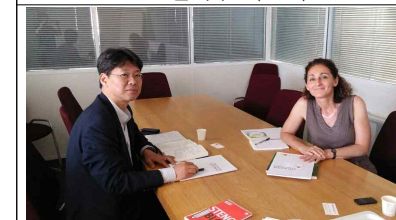
프랑스 공공투자은행(7.3.)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지역사업 총괄사무국(7.4.)



오베르뉴-론알프스 레지옹 의회(7.4.)



일드프랑스 레지옹 도시개발연구원(7.5.)

※ 출장자료

- Contrat de plan Etat-Region:histoire et perspectives, CGET, 2017.7
- RAPPORT D'INFORMATION FAIT au nom de la commission des finances sur l'enquete de la Cour des comptes relative aux contrats de projets Etat-regions (CPER),Par M. Alberic de MONTGOLFIER
- Contrat de plan Etat-Region Ile de France 2015-2020
- Plan Strategique 2018-2023, BpiFrance
- Contrat de plan entre l'Etat et la Region Rhone-Alpes 2015-2020
- CPER 2015-2020 ILE-DE-FRANCE EVALUATION ENVIRONNEMENTALE, IAU Ile-de-France, 2015,7